

'자전거 타기 안전해요'

전주시, 삼천 농협공관장~해성중교~정동마을 입구 구간 도로 설치 추진

인도가 좁아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높았던 학교 통학로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삼천동 농협공관장에서 해성중고등학교, 정동마을 입구까지 1.2km 구간(712 지방도·계룡산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해성중·고등학교와 한국전문대학교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

또한, 주말에는 모악산으로 향하는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길의 인도의 폭이 1.5m로 좁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로로 나가는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신규택지개발지구인 효천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 용산마을 회관에서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 국장은 "전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전거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통학을 위해 학교주변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손글씨 공모작에 투표... 전북도 한글큰잔치를 하고 있다.

전라도 정도천년 2018년 전라북도 한글큰잔치가 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어린이들이 손글씨 공모작에 투표를 하고 있다.

예수병원, 첨단 CT 가동 시작

0.25초 만에 심장 영상정보 확보

예수병원에서 지난 8일 1층 CT실에서 관촬형 병문장을 비롯, 전 입직원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첨단 CT 가동을 시작했다.

특히, 예수병원에서 도입한 듀얼 소스 CT, 독일 지멘스의 SOMATOM Definition Flash는 두 개의 X선관과 두 개의 검출기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다중 튜브(Dual Source) CT 장비로, 기존 CT에 비해 더욱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며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대



한 줄어 방사선량은 1/4로 감소시킨 최첨단 CT다. 최첨단 CT는 기존 MDCT의 기술적, 임상적 한계를 넘어선 차세대 CT로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존 CT 보다 적은 방사선량 심장 촬영이 가능해 0.25초 만에 심장의 영상정보는 확보할 수 있고 단 10초 만에 전신촬영을 할 수 있다.

또한, 맥박이 매우 빠르거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도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숨쉬기 힘든 노인, 어린이, 응급환자, 소아환자의 검사도 가능해 졌다.

더불어, 심장을 직접 보는 듯한 3차원의 선명한 영상을 통해 심장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뇌 단층촬영은 초기 미세 출혈을 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가을추억, 호동골 꽃밭에서

전주시, 내일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진행

가을꽃들이 만개한 호동골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호동골 자연생태체험 학습원(구.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하는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는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를 테마로 방문객들이 코스모스와 메리골드, 꽃무릇 등 가을꽃과 허수아비가 어우러진 꽃누리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이야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 △꽃밭로 만들기 △봉숭아들이기 스트레터 타고 꽃구경하기 등의

14가지 자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꽃잎을 붙여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만드는 '우리가 꾸미는 가을 풍경', 꽃밭 버스킹 등 5가지의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주화훼인연합회 12명과 정읍국유림관리소 9명, 운두래공동체 10명, 전북 숲해설가 전문가 협회 7명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한층 풍성한 행사를 마련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 속에서 지친 심신을 자연 속에서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전주시의 주요 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덕진갤러리 36.5, 19일까지 '한복입은 도자기 인형전'

전주시 덕진구청 덕진갤러리 36.5(덕진구청 1층)에서는 오는 19일까지 2주 간에 걸쳐 '한복입은 도자기 인형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세라 작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탐으로 빚은 도자기 작품 15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8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 장인 박람회' 공모에서 선정된 한복도자기 인형 4점도 최초로 공개된다.

정세라 작가는 "도자기는 생활철이나 컵'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한복의 하늘거림과 부드러운 주름, 고운 선과 맵시를 도자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신선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갤러리 36.5는 관공서 청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선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송효철 기자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 '꼭~'

전주시, 24일까지 정기검사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

상거래 시 사용하면 과태료

전주시가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주지역 상거래용 저울 3000여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기식저울 저울이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았거나 이때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과 평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나뉘어 실

(검사 일정 및 장소)

연번	검사일	대상지역	검사장소	주요검사장
1	10.4(화)	영희 1-2동	영희2동 주민센터	
2	10.5(수)	서곡동, 용화동 1-5동, 10.6(목)	용화2동 주민센터	
3	10.10(수)	상원동 1-3동, 10.11(목)	상원동행정복지센터 (중도예천사우회실)	→ 중앙시장 주유소 30. 23(화)
4	10.12(금)	중앙동, 노송동	중앙시장주유소	
5	10.17(수)	중앙동, 용화동, 용서동, 용서동	남부시장 교계지원센터	
6	10.18(목)	인후 1-3동	모래내시장주유소	
7	10.19(금)	상원 1-3동, 용화동, 용화동수원로대리점	상원시장 (한벽문화관사우회실)	
8	10.19(금)	감암 1-2동, 인후동	감암1동 주민센터	→ 모래내시장 주유소 30. 23(화)
9	10.19(금)	우이동, 우이동	우이동 주민센터	
10	10.23(화)	조촌동, 양산동, 혁신동	조촌동 주민센터	

시되며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 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하거나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전화 063-281-2373)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일자리청년과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송효철 기자

불법조업 어선 2척 검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불법조업선을 검거 단속해 '철산 황금어장'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경 하왕도 서방 7해리(서쪽 약 13km) 해상에서 도계위반 불법 조업한 A호(9.77톤, 여수선적, 연안선망, 분선)와 B호(7.93톤, 여수선적, 연안선망, 부속선)이 멸치조업 중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15함에 검문검색을 받다 적발됐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안=이복수 기자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종결

검찰이 강원랜드 채움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관리대상범죄 등 혐의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